

주간기도정보

2024. 2. 2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군선교는 청년 선교 황금어장...‘100만 장병을 주께로’

한국교회군선교연합조찬예배, 14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예장통합 주관으로 열려



제263차 한국교회 군선교 연합 조찬 예배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여전도 회관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예배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종목사파송교단·예장 통합총회가 주관했다.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의식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침례교단에서 공부할 당시 성경을 중시하며, 복음 전도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복음 전도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주님께서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한국이 잠들고 병들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생겨났다.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인 예배”라며 “6·25전쟁 때도 믿음의 선조들은 성전을 지켰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만은 변질되어선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로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때에 마지막 보루가 군 선교회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힘든 군 훈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군 선교회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한국교회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순서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1,004개 군인교회를 위하여 ▲군종목사(약 250명), 군선교사(약 500명), KMCF회원(약 6만 명)을 위하여 ▲군목파송교단, 한국군종목사단, 군선교 유관기관, MEAK 중앙본부와 국내·해외 지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청년 생명을 살리는 군선교 사역을 위한 제목으로 기도했다.

먼저 김보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올해 140년 역사를 가졌다면, 군선교 역사는 70년이라 말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주셨고, 한국교회 역사의 후반전은 군선교가 감당할 의미가 크다. 선교의 중요한 황금어장 세 가지를 말하면 학원과 직장 그리고 군선교”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사들을 위해 헌신한 노회와 교회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우리 총회 임원들을 대신해서 함께 해 나갈 사역과 새로운 비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여 김순미 장로는 “군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선교다. 군선교는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선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교”라며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엔 군선교가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사도행전 28:31)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도 아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한일서 2:14)

하나님, 군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온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위기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만한 군 복무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일에 순종하며 힘쓰게 하소서. 주님,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100만 장병을 축복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청년세대들이 일어나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주께 드리며 선교완성의 산 소망으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성결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북한 IT조직 도박사이트 제작...해커 ‘김수키’ MS·오픈AI 제품 활용

김정은 비자금 담당 산하 조직...북한 위협 단체 김수키, 학술 기관이나 NGO 사칭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북한 IT조직 ‘경흥정보기술교류사’가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한국 사이버범죄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국내 불법 도박 범죄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공개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4일 ‘경흥’의 불법도박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경흥’은 조직원 15명이 분업 시스템을 갖춰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했다.

한국 범죄조직들은 ‘경흥’이 북한 조직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 국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국과 일본 개발자보다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흥’은 도박사이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도 빼내 판매를 시도했다. 또한, ‘경흥’ 외에도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북한 외화벌이 조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커조직 ‘김수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품을 활용해 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MS와 오픈AI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커 조직 ‘에메랄드 슬릿’은 2023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위협 단체”라며 ‘김수키’, ‘탈륨’, ‘벨벳’, ‘천리마’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해커 집단과 행위자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김수키’는 2012년부터 글로벌 정보 수집 업무를 맡은 북한 해커 집단으로 한반도와 핵 정책,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키 공격 대상은 주로 한국 정부 기관과 한·미·일 전문가 및 집단이라고 CISA는 지목했다.

MS 등은 보고서에서 ‘김스키’가 평판 좋은 학술 기관이나 NGO를 사칭해 특정인을 목표로 하는 피싱 공격인 ‘스피어 피싱’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AI 도구가 피싱 이메일과 멀웨어 작성을 도와 해커의 공격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한다”며 “AI를 이용한 사이버 전쟁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사편 62:10)

하나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끊임없이 해킹으로 거짓과 포악을 양산하는 북한 정권의 악함을 보사 헛된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조직임을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을 탐하여 거래한 국내 범죄조직들까지 개입된 남북한의 어둠의 일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거짓이 없고 성결하며 화평케 하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북한을 일깨우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악한 사탄의 간계를 깨뜨리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열방을 섬기며 예수 생명이 힘 있게 전파되는 북한이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연합체 선교한국, ‘2024 청미선’ 개최

다음세대를 선교 주체자로 세운 ‘청미선’...청년들로부터 듣는 선교 공청회



선교연합체 선교한국(사무총장 최읍 선교사)이 주최하는 ‘2024 선교한국 청년·미래·선교’(청미선)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 50여 명이 8개 조로 흩어져 선교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했다.

청년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웨(WEC) 국제선교회 단기선교에 참여한 염찬양(22) 씨는 “선교는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들었다”며 “일상에서 모든 크리스천도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아닐까. 선교지에서의 선교, 일상에서의 선교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하는 김은진(28) 씨는 복음을 전하다 오히려 관계가 깨질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냈다. 김 씨는 “결국 복음적인 삶으로 보여줄 지점을 고민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화해와 용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토론 후 최읍 사무총장은 ‘선교패널 랩업’(Level Up) 시간을 진행했다. 각 조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선교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대그룹 토의 시간이다. 이날 토론자로 허태영(선교단체 학생신앙운동 SFC) 대표, 김태구(학원복음화협의회) 대표, 이승모(한국SIM국제선교회) 선교사, 이나무(국제프론티어즈한국선교회) 선교사가 참여했다.

청년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의 괴리감을 좁히는 방법을 궁금해했다. 허태영 대표는 “진리가 무엇이며 왜 그 진리를 믿는지,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된 삶이 매력적인지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전적인 전도 방식에 관한 질문에 이나무 선교사는 “상황에 따라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더 관계를 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해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청미선은 ‘청년들로부터 듣는 선교 공청회’로 기획되었다. 상명하복 형식으로는 미래 선교의 주역인 청년 세대를 선교 자원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해 제18회 선교한국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지 현장, 청년, 선교학 등이 따로 움직인다는 생각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생각을 듣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을 선교 주체자로 세우려면 먼저 이들의 상황과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시편 67:1-3)

하나님, 선교의 주역으로 부름 받은 다음세대가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살아낼 능력이 없어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더욱 밝히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살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소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직분과 소속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들을 선교의 주체로 세워가는 일에 연합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주를 찬송하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다음세대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